

제주 올래와 올렛담의 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무근성 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Olle and Olle-Dam in Old Settlements of Jeju

- Focused on a "Mu-geun-sung" area -

이 용 규* 이 승 택** 김 정 곤***
Yi, Yong Kyu Lee, Seung-Taeck Kim, Jung-Gon

Abstract

The study aims to fi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Olle and Olle-Dam the old town of Jeju city, "Mu-geun-sung," through researches of the status of the spatial structure in the area. The research was mainly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field survey.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typification of alleys and stone walls.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to reveal the location, length, and materials of the stone walls on alleys.

As a result, this study can grasp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alleys and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one walls in the old urban areas of Jeju City. The unit alley located in the old city area of Jeju was severely damaged. Also, the stone walls could reveal that there are few areas where the original shape is preserved. The management of the community has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in the use of alleys. In addition, there is concern about the damage caused by securing a road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 damaged stone walls had basically the original shape. There were many stone walls that retained their original shape in the old alley. For this reas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alleys and stone walls located in the old urban areas of Jeju are utilized as assets of the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community recovery using old alleys of Jeju is required.

주요어 : 제주, 특성, 올래, 올렛담

Keywords : JeJu, Characteristics, Olle, Olle-Da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는 지방 노후 중소 지역의 전략적 재생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핵심과제로 해당 지역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소규모 주거 환경정비의 전략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간 국내의 많은 지역들은 다수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 대안들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왔으며,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역시 근대화와 함께 큰 건축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80년대 신제주 도시계획의 수립과 완성으로 정주 인구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되었고 최근까지도 원도심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제주에는 ‘올래’¹⁾라고 하는 타 지역과는 구별되는

제주만의 독특한 골목공간이 존재한다. 올래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 하나 ‘한길’ 또는 ‘거릿길’로 불리는 큰길에서 개인의 주거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골목길로 정의된다.²⁾ 올래는 단순히 필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주의 거친 바람으로부터 정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좁은 골목을 두는 것으로 올렛담으로 불리는 돌담을 쌓아 2m 전후의 좁은 폭을 형성해 독특한 경관과 위요감을 형성한다. 또한 돌과 돌만으로 짜인 제주의 돌담을 일종의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³⁾ 지역이 지닌 고유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올래와 올렛담은 도시재생의 유용한 자산으로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 지역 내 올래는 1970년 이후 기존 도로의 확포장과 복개로 인한 도로 신설 등으로 올래가 단절되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Jeju Urban Regeneration Center, nalara@jejuregen.org)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공학박사

본 논문은 2016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음

1) 기존문헌에서는 ‘올래’와 ‘올레’가 혼용되 사용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2017)은 ‘올래’를 ‘이웃’의 제주 방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웃의 방언인 ‘올레’ 역시 한동네의 몇 집이 한 골목이나 한 이웃으로 되어 사는 구역 안, 또는 거리에서 대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올레’는 표준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올래’로 표기한다.

2) 양상호,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주, 2016, p.85

3) 김태일, 제주건축, 제주대학교출판부, 제주, 2008, p.50

거나 사라지는 등 전형적인 올래의 공간구성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⁴⁾, 이로 인해 올래를 구성하는 올랫담 역시 큰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도 주택수요 증가와 차량 증가로 인한 올랫담의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시 무근성⁵⁾ 지역 올래와 올랫담의 전수 조사를 통해 물리적, 활용적 실태를 파악해 올래와 올랫담의 유형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주 올래와 올랫담의 지역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밝히는 동시에 지역 재생을 위한 보전과 활용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제주시 원도심 지역 중 남북방향으로 무근성과 탑아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무근성’ 지역은 지금의 제주시 삼도2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제주목 관아지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서문을 지나 성곽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는 마을을 의미했으며, 무근성에 이웃해 북쪽 매립지인 해안까지를 ‘탑아래’라 불렀다. 이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이며 민가는 해안선을 따라 일부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방어적 성격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복원된 제주목 관아지와 제주북초등학교는 올래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대상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과거 읍성 서측의 무근성을 포함해 북측 매립지 이전 해안가 마을이었던 ‘탑아래’와 ‘무근성(陳城)’ 그리고 그 사이공간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한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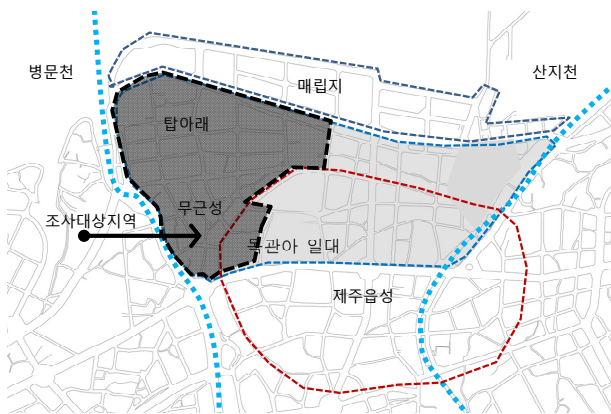


Fig. 1. The object and scope of "Mu-geun-sung" area

본 연구의 방법은 1) 문헌조사와 2)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문헌 조사는 제주 올래와 올랫담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이

루어 졌다. 현장조사는 올래내 올랫담의 위치와 길이, 재료와 쌓기 방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측 조사와 단위 올래 이용 세대와 거치물 등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찰 조사로 구분해 진행되었다. 현장조사는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에 실시되었으며, 실측조사를 바탕으로는 올래와 올랫담의 물리적 특성을, 관찰조사를 바탕으로는 올래의 활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올래의 유형에 따른 올랫담의 특성을 밝히고 향후 올랫담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2. 올래와 올랫담의 이론적 고찰

2.1 제주 돌담의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제주 돌담에 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연구 현황과 ‘올래’ 및 ‘올랫담’의 물리적 특성을 도출 하였다.

제주의 올랫담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유정(2012), 강정효(2000), 김종석(1998) 등은 제주사회 돌문화의 하나로서의 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들이 있었다. 또한 고광민 등의(2006) 주생활 속 전통 문화로서 올랫담을 고찰한 연구가 있었으며, 최용복(2006), 고성보(2007) 등은 경관적 자산으로서의 관점에서 제주 전역의 발달현황(총길이)과 훼손정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반면 원도심과 올래의 정주 환경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로는 양건(2015), 김태일(2008) 등이 있었으며, 특히 양상호(2011)는 제주읍성의 도로체계를 복원하고 그 특성요소와 원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올랫담 등의 제주 돌담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그 가치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도심지역 올래와 올랫담의 특성 및 물리적 현황을 최초로 밝히고, 도시재생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2.2 올래의 문헌 고찰

양상호(2015)는 올래의 전형적인 형태로 2m 전후의 좁은 폭과 지붕처마보다 높지 않은 1.5m~1.8m 정도의 양쪽 돌담(올랫담)에 의해 형성되며, 올랫담은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휘어지면서 공간의 유희성이나 연속감을 증가시키는 흥미로운 장면을 연출하는 경관요소이며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중요한 건축 계획적 요소로 활용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태일(2008)은 올랫담을 제주도의 기후특징인 “풍다”에 대해 유효한 방어 시설 역할을 하며, 올래 입구 양쪽에는 ‘정주석’이 있고 집주인의 부재 여부를 알려주는 ‘정낭’이 정주석에 걸쳐 있으며, 이문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올래는 대부분은 여러 세대가 공유하며 공유공간인 도로(지목상의“도로”)까지를 올래라 하지만, 자신의 집마당까지 진입하기 위하여 사유공간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올래라 하여 이웃과 공유하기도 한다. 한편 농촌지역의 긴 올래와 달리 읍과 같은 도심지역에서는 이문간을 둔 짧은 올래가 다수

4) 이용규, 정립원, 양건, 제주시 구도심 골목길 공간구조 특성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8), 2015, pp.39-46

5) 무근성 지역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중심지로서, 가치 있는 올래가 다수 남아 있는 지역으로 제주시 원도심 이해에 시급적으로 평가 된다.

6) (사)창의연구소, 제주시무근성지역 역사문화환경 기초조사 사업, 제주, 2013, p.7

발견된다. 올래의 입구는 어귀라 부르며 어귀들은 올랫담이 시작하는 부분의 하부에 놓인다. 올래 바닥의 양옆에는 잘 다듬어진 다리광돌이 설치된다. 비가 올 때 흙이 신발에 묻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이처럼 올래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올래의 폭과 길이, 바닥 등의 형상을 통해 위요감과 공유하는 세대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ig. 2. Olle and Olle-Dam in Downtown

2.3 올랫담의 문헌 고찰

제주 돌담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올랫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고성보(2009)는 제주의 돌담을 축조 방식에 따라 평면적으로 한 줄로 쌓는 외담과 넓게 쌓는 겹담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하단부에 일정 높이까지 작은 돌로 ‘굽’을 쌓고 그 위에 큰 돌로 쌓는 잠굽담(백켓담)으로 정의했다. 또한 김유정(2012)은 입면의 쌓는 방식을 바른층 쌓기(성층 쌓기), 막쌓기(허튼층 쌓기), 견치석(다이아몬드식) 쌓기로 유형화 하였다<Table 1>. 이들 유형은 평면적으로 외담의 형태를 지닌다. 바른층 쌓기는 돌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 ‘품(品)’자 형태로 쌓는 방식이다. 돌을 어느 정도 가공해야 가능한 쌓기로 돌과 돌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허튼층 쌓기는 제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돌담 쌓기 방식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돌들을 상황에 맞게 돌려가며 균형을 유지해 쌓는 방식이다. 돌과 돌의 사이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며 강풍의 강도를 낮추는 역할(파풍효과)을 한다. 견치석 쌓기는 돌을 사각형으로 가공하여 마름모꼴 형태로 쌓는 방식을 말한다. 돌과 돌 사이의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제주의 올랫담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얻은 원형의 돌을 거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허튼층 쌓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멘트와 블록 등 새로운 재료의 등장, 돌을 가공하는 도구와 기술이 보급 등으로 바른층과 견치석 쌓기가 보편되는 과정 속에서 올랫담 역시 변화와 진화의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랫담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돌의 가공과 쌓기 방식, 고정 여부, 재료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것은 원형을 이해하고 향후 활용 방안 모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올래”, 2017.5.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25697&cid=51955&categoryId=55497>

Table 1. Stacking type of stone wa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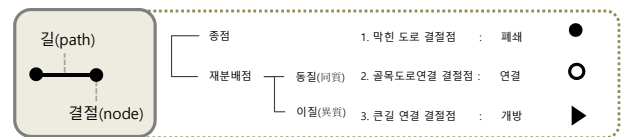
바른층 쌓기	막쌓기	견치석쌓기

3. 무근성 내 단위 올래의 공간적 특성

3.1 단위 올래의 유형

(1) 단위 올래의 유형화

선행연구⁸⁾에서는 골목공간의 특성을 고찰해 올래를 길과 결절을 지닌 ‘단위 올래’들로 구성된 군집으로 정의하고 유형화할 수 있었다. ‘단위 올래’는 큰길에서 개별 주택까지 연결된 최소 너비 4m미만의 선형 길과 양 결절점을 지닌 올래로 정의 한다. 이때 결절점은 막다른 길 등 통행이 불가능한 “막힌 결절점(중점)”과 통행이 가능한 샅길로 이어지는 “열린 결절점(재분배점)”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다시 열린 결절점은 4m 미만의 동질(同質)의 올래로 연결되는 결절점과 4m 이상의 이질(異質)의 도로로 연결되는 결절점으로 구별 될 수 있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한 막힌 결절점을 “폐쇄”, 동질의 올래로 연결되는 열린 결절점을 “연결”, 이질의 도로로 연결되는 열린 결절점을 “개방”으로 정의 하였다. 이때 단위 올래는 반드시 두 개의 결절점을 지니게 됨으로 결절점들의 조합에 의해 9개의 유형이 존재하고, 동일 유형과 통행이 불가능한 유형을 제외하면 결국 5개의 유형만이 존재할 수 있게 됨을 밝힐 수 있었다<Fig. 3>.



*“골목길”은 큰길에서 갈라져 나와 마을 안에 위치하는 너비 4m 미만의 길

결절점(a)	결절점(b)	단위 올래 기호	가능 여부	단위 올래 유형
● (폐쇄)	●	●—●	통행 불가능	-
	○	●—○	통행 가능	폐쇄, 연결형 [유형1]
	>	●—>	통행 가능	폐쇄, 개방형 [유형2]
○ (올래 "연결")	●	○—●	유형1 동일	-
	○	○—○	통행 가능	연결, 연결형 [유형3]
	>	○—>	통행 가능	연결, 개방형 [유형4]
> (도로 "개방")	●	<—●	유형2 동일	-
	○	<—○	유형4 동일	-
	>	<—>	통행 가능	개방, 개방형 [유형5]

Fig. 3. Type of unit alley

8) 이용규, 정립원, 양건, 제주도 구도심 골목길 공간구조 특성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8), 2015, p.42

(2) 단위 올래의 유형별 역할

본 절에서는 대상지내 단위 올래 유형의 군집 내 역할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군집은 큰길에 이르기 까지 연결된 단위 올래 들의 집합체를 의미 한다. 우선 단위 올래는 총 29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유형2’가 9개(31.0%), ‘유형4’가 8개(27.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유형1’은 4개(13.8%), ‘유형3’은 3개(10.3%)로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이들 유형은 옛길이 다수 남아 있는 서문터 북측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

대상지내 존재하는 단위 올래 군집의 도식화를 통해 심도(深度)의 깊이 정도(큰길로 이르기 위해 통과하는 결절점 수)와 경로(經路)의 수(큰길에 이르기 위한 경우의 수)를 고찰하였다<Fig. 5><Table 2>. 도식은 좌표 ‘1.1’를 기준으로 우측은 심도의 깊이 정도를, 아래는 경로의 수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내에는 5개의 도식([A]-[D])이 존재할 수 있었다. [A], [B]는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각각 단위 올래 ‘유형2’와 ‘유형5’가 단일로 구성 되어있다. 이로 인해 큰길에 이르기 위한 심도가 [A], [B]는 2로 알고, 경로의 경우 수도 [A]는 1, [B]는 2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C], [D], [E]는 복수의 ‘유형1’, ‘유형3’, ‘유형4들’의 연결을 통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심도가 [C]는 2, [D], [E]는 3로 깊고, 경로도 [C]는 3, [D]는 6(3X2), [E]는 3(1X3)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형1’은 심도를 깊게, ‘유형3’은 경로의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유형 1’과, ‘유형3’은 심도와, 경로의 관계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 올래의 전형적 특성⁹⁾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 Distribution of unit alleys

9) 올래는 큰길(한길)에서 가짓길(거릿길)과 연결되며, 올래들을 연결하는 면올래를 통해 막헌올래(막은창)로 이어지는 깊은 심도와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어 자연스러운 만남과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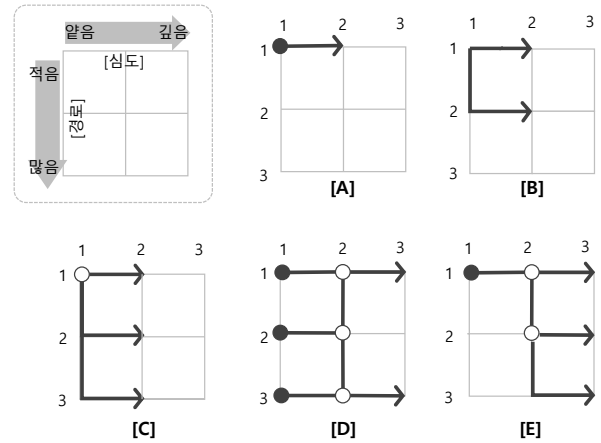


Fig. 5. Group of unit alleys in the target area

Table 2. The number of unit alleys

단위 올래 유형	빈도	단위 올래 군집 유형				
		A	B	C	D	E
유형1(폐쇄,연결형)	4				3	1
유형2(폐쇄,개방형)	9	9				
유형3(연결,연결형)	3				2	1
유형4(연결,개방형)	8			3	2	3
유형5(개방,개방형)	5		5			
합계	29	9	5	3	7	5

3.2 무근성 내 단위 올래 유형별 특성

(1) 단위 올래의 물리적 특성

본 절에서는 앞선 이론 고찰에 근거해 단위 올래의 성격을 규명하는 물리적 요소로 올래의 평균길이, 평균너비, 단위 올래내 올랫담 양 측벽에 대한 점유 비율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실측 조사를 통해 다음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Table 3>.

단위 올래의 전체 평균 길이는 38.63m이었다. ‘유형1’은 20.99m이었으며, ‘유형3’은 26.37m로 전체평균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 올래의 전체 평균 최소폭은 2.28m이었다. 유형별 최소폭은 ‘유형2’가 2.09m, ‘유형1’이 2.11m, ‘유형3’이 2.19m로 평균보다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 올래의 전체평균 최대폭은 3.24m 이었다. 유형별 최대폭 역시 ‘유형1’이 2.61m, ‘유형3’이 2.81m로 전체 평균보다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단위 올래 유형별로는 심도가 깊은 올래의 전형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전체 평균 보다 길이가 짧거나 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근성 내 단위올래의 올랫담 전체 길이는 821.18m로 이를 올래를 구성하는 양 측벽 길이에서 차지하는 점유 비율을 계산하면 36.7%에 불과했다. 단순히 올랫담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형으로는 ‘유형2’가 231.28m로, ‘유형5’가 240.20m로 가장 길었다. 반면 점유 비율 에서는 전형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유형1’이 58.2%로, ‘유형3’이 43.6%로 평균 이상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unit alley type

단위 올래 유형	빈도	평균 길이 (m)	평균폭		올렛담 (돌담) (a)	올래 양측벽 (b)	점유율 (a/b)
			최소	최대			
유형1 (폐쇄,연결형)	4	20.99	2.11	2.61	97.80	167.94	58.2%
유형2 (폐쇄,개방형)	9	41.98	2.09	3.10	231.28	755.70	30.6%
유형3 (연결,연결형)	3	26.37	2.19	2.81	69.00	158.22	43.6%
유형4 (연결,개방형)	8	30.80	2.47	3.37	182.90	492.80	37.1%
유형5 (개방,개방형)	5	66.57	2.51	4.12	240.20	665.71	36.1%
합계	29	38.63	2.28	3.24	821.18	2240.37	36.7%

이상의 고찰을 통해 과거 막은창 올래나 먼올래에 해당하는 심도가 깊고 경로의 수를 다양화 하는 전형적 유형('유형1', '유형3')은 타 유형들에 비해 평균 길이와 폭이 상대적으로 짧고 좁다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형적인 유형의 올렛담 점유 비율은 높아 상대적으로 잘 보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무근성내 전형적 유형의 올래들은 기존의 물리적 특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반면, 도로 신설 등으로 분절 되고 심도가 얕아진 올래들은 물리적으로 훼손이 가속화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단위 올래의 활용 특성

앞선 이론적 고찰에 근거해 단위 올래의 성격을 규명하는 활용 요소로 올래를 공유하는 세대의 비율, 단위 올래의 차량 진입여부와 바닥 재료, 단위 올래에 비치되어 있는 거치물 들과 식생 현황 등 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관찰 조사를 통해 다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위 올래에 면해있는 세대수는 전체 169세대이며, 평균은 단위 올래 당 세대수는 5.83세대이었다. 이중 단위 올래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는 세대 수는 총 105세대이었으며 평균은 단위 올래 당 3.62세대로 비율은 62.1% 이었다. 유형별로는 큰길과 바로 연결 되어 심도가 가장 얇은 '유형5'와 '유형2'가 각각 평균 8.2세대, 평균 7.11세대로 가장 많이 면해 있었으며, 단위 올래를 통해 진출입 하는 세대 역시 '유형5'와 '유형2'가 각각 평균 5.4세대와 평균 4.78세대로 전체 평균 3.62세대 보다 많았다. 비율 역시 '유형5'와 '유형2'가 각각 65.9%와 67.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 4>.

Table 4. Entry and exit by unit alley type

단위 올래 유형	평균출입세대	평균전체세대	출입세대비율
유형1(폐쇄,연결형)	2.50	4.50	55.6%
유형2(폐쇄,개방형)	4.78	7.11	67.2%
유형3(연결,연결형)	2.67	4.33	61.5%
유형4(연결,개방형)	2.13	4.13	51.5%
유형5(개방,개방형)	5.40	8.20	65.9%
합계	3.62	5.83	62.1%

관찰 결과 단위 올래의 차량 진입 여부는 불가능이 19개소(65.5%)로 가장 많았다. 향후 주차장 확보나 미달도 록 확폭 등의 이유로 올래와 올렛담 훼손이 우려된다 하겠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은 '유형5'가 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가능한 '유형2'가 2개소로 결정점이 개방된 유형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올래의 바닥 재료는 아스콘이 21개소(7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멘트가 5개소(17.2%)로 대부분의 단위 올래가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원형이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찰 조사 시 의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일시적 거치물이 존재한 단위 올래는 11개소(37.9%)이며, 장기적 거치물인 화분 등의 식생이 존재한 올래는 10개소(34.5%)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Table 5>.

Table 5. Usage characteristics of unit alley

활용 특성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차량 진입	불가	19	65.5%
	가능	8	27.6%
	일부가능	2	6.9%
	합계	29	100.0%
바닥재료	아스콘	21	72.4%
	시멘트	5	17.2%
	흙	1	3.4%
	기타	2	6.9%
	합계	29	100.0%
거치물	있음	11	37.9%
	없음	18	62.1%
	합계	29	100.0%
식생	있음	10	34.5%
	없음	19	65.5%
	합계	29	100.0%

이상의 고찰 결과 단위 올래에 면한 세대들의 올래를 통한 진출입비율은 높지 않았다. 관찰 결과 도로 신설로 큰길에 접하게 된 세대들은 이전 올래를 통한 진출입 대신 신규도로로 진출입 하고 있었으며, 올래로 진출입하는 세대도 올래를 공유하는 세대가 줄어 올래 중간에 문을 설치하는 등 사적 이용 사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단위 올래의 바닥은 대부분 관리가 용이한 인공적 재료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커뮤니티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 단기적 거치물의 이동이나 활용 역시 빈번히 관찰되지는 않았다. 식생들의 상태나 종류 역시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위 올래를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이용과 관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는 못한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4. 무근성 내 올렛담의 특성

4.1 올렛담의 물리적 특성 고찰

본 절에서는 올렛담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로 돌의 가공 여부와 쌓기 방식을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예비 조사에서 인지되었던 올렛담 돌들의 몰탈 등

에 의한 고정 여부, 이질적 재료를 통한 올렛담의 높이의 변화 여부 역시 요소로 활용하였다<Table 6>.

실측 조사를 통해 29개의 단위 올래 내에 총 81건의 올렛담이 존재를 확인 하였다. 올렛담은 동일한 물리적 형식이 연속되는 구간을 단위로 하였다. 올렛담의 돌은 78건(96.3%)이 자연에서 얻은 원형의 돌을 가공하지 않은 비 가공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쌓기 방식 역시 77건(95.1%)이 외담의 허튼층 쌓기로 전형적인 올렛담의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돌들의 고정여부에 있어서는 시멘트 몰탈 등으로 돌들을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고정이 61건(75.3%)으로 돌들을 물리적으로 고정하지 않는 비 고정 20건(24.7%)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렛담의 높이를 이질적 재료로 높인 올렛담 사례는 19건(23.5%)으로 높이를 추가하지 않은 올렛담 사례 62건(76.5%) 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Table 7>.

Table 6. Example of changing the stone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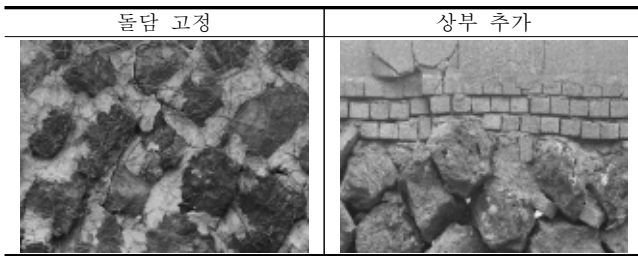


Table 7.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tone walls

물리적 특성		빈도	퍼센트
가공여부	가공	3	3.7%
	비가공	78	96.3%
	합계	81	100.0%
쌓기	바른층	3	3.7%
	견치석	1	1.2%
	허튼층	77	95.1%
합계	81	100.0%	
고정여부	고정	61	75.3%
	비고정	20	24.7%
	합계	81	100.0%
상부 추가여부	추가	19	23.5%
	비추가	62	76.5%
	합계	81	100.0%

이상의 고찰을 통해 올렛담은 새로운 재료인 몰탈 등이 더해지면서 고정되고 높이가 추가되는 등 원형이 훼손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각적으로 투시되는 전형의 올렛담이 가려지고 고정된 것은 구조적 안전성과 함께 앞서 고찰한 커뮤니티의 약화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높이의 변화 역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커뮤니티의 변화와 관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올렛담은 대부분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돌을 외담의 허튼층쌓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는 전형적인 형태가 회복 가능하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다.

4.2 단위 올래 유형 별 올렛담의 특성 고찰

본 절에서는 앞서 고찰된 단위 올래의 유형에 따른 올렛담의 물리적 특성을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해 올렛담 역시 그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올렛담은 돌들의 가공여부, 쌓기 형태, 돌들의 고정 여부, 높이 추가 여부를 통해 다음과 같이 12개의 유형을 도출 할 수 있었다<Fig. 6>. 조사 결과에서는 이중 6개의 유형만이 무근성 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자연석 허튼층쌓기에 돌들이 몰타르 등으로 고정된 '다-1-b'이 가장 높은 빈도인 42건 존재하고 있으며, 총 길이 역시 53.8%로 가장 길었다. 빈도에 있어서는 허튼층쌓기에 돌들을 고정하고 높이를 추가한 '다-1-a'와 전형적인 형태인 자연석 허튼층쌓기에 돌들이 고정되지 않은 '다-2-b'가 동일한 19건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나 길이에 있어서는 원형의 형태가 보전된 '다-2-b'가 23.9%로 길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전체 올래의 측벽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점유율은 8.7%(c/2b)만이 그 원형을 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8>.

단위 올래의 유형에 있어서는 큰 길과 연결되는 '유형 5', '유형2', '유형4' 순으로 각각 29.3%, 28.2%, 22.3% 올렛담의 길이가 길었으며, 올렛담의 존재 빈도 역시 각각 20, 22, 20곳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유형에 올렛담이 잘 보전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해당 유형의 올래 자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올렛담과 그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Table 9>.



Fig. 6. Types of stone walls

Table 8. Actual condition of stone wall type

올렛담 유형	빈도	전체 길이(m)	퍼센트
가-1-b	3	31.18	3.8%
나-2-b	1	18.48	2.3%
다-1-a	16	102.67	12.5%
다-1-b	42	442.16	53.8%
다-2-a	3	30.03	3.7%
다-2-b	16	196.66	23.9%
합계	81	821.18	100.0%

Table 9. Actual condition of unit alley type

단위 올래 유형	빈도	전체 길이(m)	퍼센트
유형1(폐쇄,연결형)	13	97.80	11.9%
유형2(폐쇄,개방형)	22	231.28	28.2%
유형3(연결,연결형)	6	69.00	8.4%
유형4(연결,개방형)	20	182.90	22.3%
유형5(개방,개방형)	20	240.20	29.3%
합계	81	821.18	100.0%

단위 올래의 유형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0>. 허튼층쌓기에 돌을 고정하는 ‘다-1-b’가 단위 올래 ‘유형1’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허튼층쌓기에 돌을 고정하지 않는 제주의 전형적인 올래담 ‘다-2-b’는 단위 올래 ‘유형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36.6%로 존재하고 있었다. 단위 올래 ‘유형1’이 심도가 깊은 제주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올래와 함께 올래담 역시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허튼층쌓기에 돌을 고정하고 다시 높이를 추가해 올래담 원형이 가장 많이 훼손된 ‘다-1-a’는 단위 올래 ‘유형2’와 ‘유형5’에서 각각 18.4%, 19.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었다. 단위 올래 ‘유형2’와 ‘유형5’가 심도가 얇고 도로개설과 확폭 등 도시의 가로구조 개편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올래 위계의 변형과 도로 포장 등으로 올래담 역시 훼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단위 올래 ‘유형1’과 ‘유형4’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4.1%, 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위 올래 ‘유형1’은 심도가 깊고, ‘유형4’는 심도는 낮지만 이전부터 큰길에 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래 자체의 원형이 보전되어 올래담 역시 원형이 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무근성 지역 내 현존하는 대부분의 올래담은 허튼층쌓기로 축성되어 있으나, 돌들의 공극이 가려지거나 높이가 추가되는 등의 변형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전형적 형태의 올래담 유형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이는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커뮤니티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물리적인 올래담의 회복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커뮤니티의 회복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올래와 올래담은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전형적인 형태의 단위 올래 유형들에서 올래담 역시 높은 비율로 원형의 형태가 잘 보전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즉, 전형적인 올래에서 올래담의 보전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으며, 올래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의 회복을 동반할 수 있다면 향후 활용적 측면에 있어 그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0. Actual condition of unit alley according to stone wall type

단위 올래 유형	올래담 유형	빈도	전체 길이(m)	퍼센트
유형1 (폐쇄,연결형)	나-2-b	1	18.48	18.9%
	다-1-a	1	4.00	4.1%
	다-1-b	6	23.73	24.3%
	다-2-a	1	15.80	16.2%
	다-2-b	4	35.79	36.6%
합계		13	97.80	100.0%
유형2 (폐쇄,개방형)	가-1-b	2	22.67	9.8%
	다-1-a	7	42.63	18.4%
	다-1-b	8	122.45	52.9%
	다-2-a	1	6.58	2.8%
	다-2-b	4	36.95	16.0%
합계		22	231.28	100.0%
유형3 (연결,연결형)	다-1-b	6	69.00	100.0%
	합계	6	69.00	100.0%
유형4 (연결,개방형)	가-1-b	1	8.51	4.7%
	다-1-a	2	9.08	5.0%
	다-1-b	12	109.46	59.8%
	다-2-a	1	7.65	4.2%
	다-2-b	4	48.20	26.4%
합계		20	182.90	100.0%
유형5 (개방,개방형)	다-1-a	6	46.96	19.6%
	다-1-b	10	117.52	48.9%
	다-2-b	4	75.72	31.5%
	합계	20	240.20	100.0%

5. 결 론

본 연구는 제주 무근성 지역에 현존하는 올래와 올래담의 유형학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제주 올래의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밝히고 그 보전과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었다.

1) 무근성 내 올래와 올래담의 특성은 물리적 현황과 활용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올래의 물리적 현황으로 단위 올래들은 근접을 이루지 못하고 도로신설 등으로 분절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올래의 심도는 낮았으며, 경로의 수 역시 다양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형 1, 3’은 심도의 깊이와 경로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유형으로서 전형적 올래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전형적인 유형들은 길이와 폭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짧고 좁았으며, 올래에 면한 세대 수 역시 4세대 내외로 올래가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밝힐 수 있었다. 전체 올래담 점유율은 평균 36.7%로 훼손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으나, ‘유형 1, 3’등 전형적인 올래 유형들에서는 40-50%이상 보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올래의 활용 특성을 살펴보았다. 도로 신설로 큰길에 접하게 된 세대들은 올래를 통한 진출입 대신 신규도로로 진출입 하고 있었으며 결국 올래를 공유하는 세대 감소로 이어져 커뮤니티의 이용과 관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세대에 의해 올래가 사유화 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그

결과 올래의 바닥은 관리가 용이한 인공재료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거치물이나 식생 역시 다양하지 못했다. 사적으로 사용되는 올래의 경우 초입에 문이 설치되는 경우가 관찰되는 등 올래의 분절과 심도의 변화가 전통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올랫담의 유형학적 특성을 통해 물리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돌들 사이의 공극을 통해 시각적으로 열려있던 원형의 올랫담은 모르타르 등이 더해지면서 가려지고 고정되고 있었으며, 높이 역시 블록 등으로 추가되는 등 훼손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공성 보다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게 된 커뮤니티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올래와 올랫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형태의 올래 유형들에서 원형의 올랫담 역시 잘 보전되고 있었다. 이들 올래의 커뮤니티와 공공성이 회복된다면 향후 경관적 가치와 활용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무근성 내 올래와 올랫담의 특성 및 지역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통해 다음의 보전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Fig. 7>.

올래의 분절과 위계의 변화가 전형적인 올래의 공간구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올래를 활용하는 세대의 감소로 이어져 이용과 관리를 약화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올래 내 유희 공간 활용 등을 통한 공유 세대 수 회복과 분절된 단위 올래의 입체가로화 등의 방안을 통해 세대 수 증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올래의 분화를 촉진해 심도와 경로의 다양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과 관리의 원칙 수립 역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올랫담 역시 철거되거나 전형적 형태가 다수 변형되고 있었다. 이 역시 개발과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게 된 커뮤니티의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건축협정 제도 등을 활용해 올랫담 철거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올랫담의 디자인가이드 구축 등을 통해 원형을 보전 또는 회복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래에 텃밭 등의 공유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안 역시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 무근성 지역의 올래와 올랫담의 전수 조사를 통해 지역자산으로서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측 조사와 관찰 조사 등 현상에 대한 고찰 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현상에 대한 커뮤니티나 올랫담 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등 정성적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김태일, 제주건축, 제주대학교출판부, 제주, 2008, p.50
2. 양상호, 제주건축역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주, 2016, p.85
3. (사)창의연구소, 제주시무근성지역 역사문화환경 기초조사 사업, 제주, 2013, p.7
4. 이용규, 정립원, 양건, 제주시 구도심 골목길 공간구조 특성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2(8), 2015, pp.39-46
5. 양건, 이상호, 이용규, 제주시 원도심 골목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2), 2015, pp.1-8
6. 양상호, 舊韓末 濟州邑城의 道路體系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20(6), 2011, pp.169-185
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terms.naver.com/>

접수일자 : 2017. 07. 10
 수정일자 1차 : 2017. 08. 10
 수정일자 2차 : 2017. 08. 18
 게재확정일자 : 2017. 0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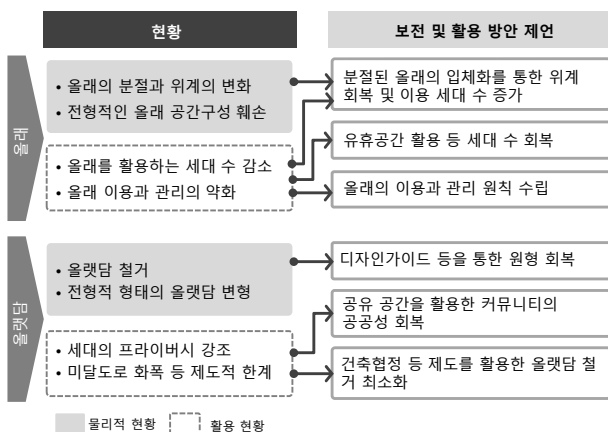


Fig. 7.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